

익산 혁신교육특구 내년부터 2년간 운영

전북교육청 2억·익산시 5억 투자... 진로체험학교·송리골 방과후학교 등 4개 과제 16개 사업 추진

도교육청과 익산시가 7억원을 투자, 내년 1월부터 2년간 익산 혁신교육특구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전북도내 혁신교육특구는 전주 정읍 남원 완주 등에 이어 5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14일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익산시가 5억원, 교육청이 2억원 등 총 7억원을 공동 투자해 익산 진로체험학교, 송리골 방과후

학교 등 16개 사업에 펼치는 익산혁신교육특구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교육특구 지정은 익산시가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과 익산시는 내년부터 2년간 마을교육공동체 등 4개 과제, 16개 사업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마을교육공동체 분야에서 △익산진로체험학

교 △송리골 마을학교 △송리골 방과후학교 △원도심학교 교육과정 운영 △다문화교육 등 6개 사업을 펼친다.

또 익산문화유산 교육과정, 문예체육 활성화, 학생동아리 지원 등 지역특색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익산학교혁신모델, 수업 혁신, 교사연구회, 학습공동체 지원 등 학교 혁신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익산혁신교육특구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

기 위해 익산시와 익산교육지원청 등은 '익산혁신교육특구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을 총괄하고 교사·학부모·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사업에 나서게 된다.

관계자는 "이번 혁신교육특구 지정은 익산교육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합심해 익산교육의 성장과 혁신에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은 기자

손혜원, "분당 서울대병원장에 최경환 가까운 사람 앓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전상훈 분당 서울대병원장이 박근혜정부의 실세인 최경환 의원의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조특위' 3차 청문회에 참석해 "분당 서울대병원이 약진을 하는 과정에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중요한 실세가 관련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의원은 "정진업 장관은 2013년 박 대통령의 취임 당시 분당 서울대병원장이었고, 서창석 원장은 분당 서울대병원의 기조실장이었다"며 "이 '의료농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전상훈이다. 경북대 출신으로 처음으로 서울대관련 병원에서 타고 출신 병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정진업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전상훈 분당 서울대병원장. 이 3인방과 오병희 당시 서울대병원장과의 밀착 의혹이 있다. 2013년 7월 오병희 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3인방을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늘랐게도 2014년 9월에 서창석 원장이 다시 대통령 주치의에 발탁되면서 반격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서창석이 서울대병원장에 앉자마자 이를 뒤 전상훈을 분당 서울대병원장에 취임시켰다"며 "서창석 원장은 전상훈이 박근혜정부 실세인 최경환 가까운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서창석 원장은 "친인척은 아니고 아는 사이라고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뉴시스

김상만 "배석자 없이 대통령 진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 저문의 출신 김상만 전 녹십자제이드원장이 14일 주치의 및 의 무실장 배석 없이 박 대통령을 단독 진료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 진료시 청와대 의무실장과 대통령 주치의가 배석했다는 질의에 "2014년 9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주치의로 오신 후엔 반드시 그렇게 했고 한 번도 제가 혼자 간 적이 없고, 그 전에 제가 기록을 보니 그렇지 않은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2013년 7월25일 박 대통령 저문의로 정식 위촉되기 전에도 청와대 관저에서 진료를 한 적이 있다고 시인, 논란을 예고했다.

김 전 원장은 "임명장은 7월25일, 8월달에 받았지만 그전부터 저는 저문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고 해명했다. 저문의 위촉 전 진료횟수에 대해서는 "두 번인가 세 번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통령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임명장도 받기 전에, 비서실장이려면 '난 비서실장이라고 들었다' 이러면서 만나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김 전 원장은 "그때는 그런 규칙이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원호 전 의무실장은 김 전 원장의 단독 진료 시인과 관련, "(주치의가) 배석하고 의논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진료 선택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해가 가는 치료라든지, 전혀 모르는 분이 한다고 하면 그건 안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보고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증인 심문 바라보는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참석해 증인 심문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승마협회, 정유라 학사관리 위해 각종 특혜 제공

문체부, 감사 결과 발표... 체육회에 정유라·관련자 징계 요구... 결과 자료 특검에 제출

대한승마협회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학사 관리에 이용된 각종 공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훈련보고서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문체부는 감사를 통해 승마협회의 국가대표 선발 과정상의 관계 규정 위반 여부와 정유라의 국가대표 훈련 내용 허위 여부,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 장소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증명 점검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승마협회는 정유라가 청담고 재학시절 학사관리를 위해 학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위문서를 발급했다.

2014년 3월31일 승마협회는 청담고로 국가대표 합동훈련(2014년 3월24일~6월30일)을 이유로 '국가대표선수 시간 할애 요청서'를 제출했다.

정유라는 이 기간 학교에 출석 않으면서도 이 문서를 통해 출석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실제 합동훈련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승마협회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로 문서를 만들어 발급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정유라가 고교 3학년이었던 2014년 공결 처리 받은 141일 가운데 최소 105일은 허위 공문서를 이용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고교 3학년 재학 동안 최소 105일을 무단 결석했다.

또 승마협회 김모 전무는 봉사활동 내역과 시간이 적혀 있지 않은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해 정유라가 총 5건, 40시간의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유라의 국가대표훈련보고서 역시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록했다. 2014년과 2015년 국가대표훈련보고서는 체육회 국가대표훈련관리지침을 어기고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선수서명이 일치하지 않았다.

문체부는 체육회를 통해 정유라의 국가대표훈련보고서를 실제 훈련한 내용에 따라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증빙이 안 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국가대표훈련비를 환수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승마협회는 최대 50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중장기로드맵을 삼성의 후원으로 추진하면서 정유라를 추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중장기로드맵은 김모 전무의 지시로 박모 전 전무가 전년 초안으로 지난해 6월 작성해 추진했지만 이사회 의결 등 타당성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은 중장기로드맵에 따라 국가대표 해외 전지훈련에 파견할 선수와 준비단장 등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가 추천한 마장마술 선수 명단 가운데 정유라가 포함됐다. 협회는 독일 전지훈련에 앞서 박모 마사회 감독을 준비단장으로 사전 현지 답사 등을 추진했다.

2014년 제주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도 정유라 때문에 장소가 임의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승마협회는 제주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지 변경을 요청했다.

체육회는 전국체전 8일 전에 이를 승인, 전국체전 규정을 위반했다. 당시 최순실씨 모녀는 승마경기 개최지를 변경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밖에도 승마협회는 2015년 8월7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 선발 규정을 임의 개정했다. 승마협회는 불과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선발전 3회 실시한 성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에서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한 경우 선발전을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재개정했다. 이는 국가대표선수선발규정을 위반한 내용이다.

문체부는 이번 승마협회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허위문서 발급 등을 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결과 자료는 특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가 확인된 정유라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도록 대한체육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뉴시스

'최순실, 고영태 등에 위증 증용 육성' 공개 파문 "고원기획은 얘기 말라"

박근혜 대통령 '비선 최순실'이 독일에 귀국하기 전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정농단 사태 관련 위증을 증용했음을 시사하는 육성어 공개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최순실 국정조특위 청문회에서 공개한 음성파일 내용에 따르면 최순실은 10월 말 독일에서 귀국하기 직전 고영태 전 더불어민주당 이사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나라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면 가방관계 남똥때야 그러지 말고 옛날에 지인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가방은 발레밀턴가 그걸 통해서 왔고 그냥 체육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지인이 알아서 연결을 해줘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고 하라"이라고 말했다.

통화에서 최순실은 "고원기획(최순실과 고 전 이사가 만든 회사)은 얘기하지 말고 다른 걸 좀 하려고 하려다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다"고도 말했다.

최순실은 또다른 통화에선 "내려앉았다"고 보니 지금 큰일 났네. 그러니까 고(영태)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개네들이 이게 완전 조작품이고 애네들이 이거를 저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몰아야 된다"며 "이성한다 이주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 시키면 다 죽

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청문회에서 공개한 뒤 "이것(2번째 통화)은 이성한다란 사람이 배신을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라 이런 내용"이라며 "실제로 이성한다라는 사람이 돈을 요구했다 이런 기사가 저 후에 나온다. 저게 10월말경의 얘기"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이임순 증인은 혹시 이런 지침을 받은 적 있냐"고 추궁했다. 박 의원의 질의에 이임순 순천향대 신부인과 교수는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역시 "(받은 적) 전혀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도의회 송년행사 "전북의 가치 높일 것"

전북도의회는 14일 의원총회실에서 김일재 행정부지사과 김승환 교육감, 임정업 의정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덕담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과 떡 케이크절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황 의장은 송년사에서 "올해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전북연구개발특구 등 주요현안 추진과정에서 문 제점은 없는 현장을 직접 찾아 확인하는 의정활동과 교육수요자의 민족도를 높이기 위한 감시경제, 그리고 조력자 역할에 온 힘을 쏟은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정파가 따로 없고 도민이 원하는 일에는 모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새해에는 새만금국제공항건설과 세계잼 버리대회 유치 등 전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중심이 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한 축인 도의회가 지난 1년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 제시 등 활발한 의정활동 결과 지역 현안 해결로 이어졌다"며 "새해에도 한 단계 도약하는 전북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338회 정례회 폐회를 끝으로 올 한해 13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재용 기자

유성업, 고창 장애인 복지관 신축 특고세 3억 확보

국회 유성업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정유·고창, 국민의당)은 행정자치부 특별고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창 장애인 복지관 신축 사업은 꾸준한 필요성이 요구되어 온 사업이었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2016년도 군비 부족분 3억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함에 따라 고창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창 장애인 복지관이 건립되면, 지역의 장애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다양한 전문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력 향상은 물론 중사인력 채용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위원장은 "고창군 인구의 10% 정도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그동안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공간마저 부족하여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특별고부세 확보로 장애인 복지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석 기자

정 의장 "국정협의회 검토를"... 황 대행 즉답 피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당의 '여야협의회' 구성 제안을 받아들여달라고 주문했지만 황 대행은 즉답을 피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황 대행을 만나 "마침 정치관에서 국정협의회를 제안했다. 그 협의회를 활용해 민생이나 경제를 살리자는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권한대행이 잘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우리 국회와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잘 소통하고 협치해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잘 협조해서 국민의 뜻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정 의장의 여야협의회 구성 발언에 황 대행은 즉답 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책임으로 받게 돼서 아주 정말 힘듭니다"며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데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황 대행은 또 "그 과정에서 의장을 중심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며 "그동안 여러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때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이 엄중함을 나도 잘 알고 있고 공무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의 뜻을 엄중하게 잘 받들고 국민의 뜻을 국정 전반에 잘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대행과 정 의장은 비공개 전환 후에는 국정 현안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의장실에 따르면 정 의장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내린 예산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한 것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며 "여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조만간 선출되면 국회 상황도 더욱 안정돼 더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황 대행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서로 양보하고 대화한다면 나라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조류독감, 경기침체, 대중국 관계 등 현안도 다뤘었다.

정 의장은 "국민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들의 빠른 심리 안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손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중국의 한국 관광객 축소, 한류 제한 조치나 세무조사 등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우려를 황 대행에게 전달했다. 국회차원에서 '동북아평화협력 의원단'을 구성해 정부외교를 보완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뉴시스